

강항의 <水月亭三十詠> 표현 양상

황수정*

<차례>

1. 머리말
2. <수월정30영> 개관과 의미
3. <수월정30영>의 표현 양상
 - 1) 강가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성
 - 2) 주변 물상에 대한 순간포착의 역동성
 - 3) 수월정 사계절의 낭만성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姜沆(1567~1618)의 <水月亭三十詠>에 대한 표현 양상 연구이다. 수월정은 지금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가에 위치한 정자이다. 먼저 <수월정기>를 통해 <수월정30영>의 개관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전체 30영에 대한 구성방식을 정리하며 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수월정30영>의 표현 양상을 고찰하였다.

첫째, 강가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성이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삶의 멋과 여유를 그려냈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일상적인 삶의 단면에 시인의 미감을 형상화시켰다. 이를 소박함 속에 피어나는 자족의 미로 승화시켰다.

둘째, 주변 물상에 대한 순간포착의 역동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청징하고 역동적인 면모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순간포착의 청각적 심상에 대한 자유로운 발상으로 청신의 미를 엿볼 수 있었다.

셋째, 수월정의 사계절에 대한 낭만성을 그려냈다. 실경과 허경의 조화 속에 초탈한 세계의 면모를 표현하였다. 수월정 주변 자연의 미와 낭만적 분위

* 北京師範大

기는 마치 탈속적 공간을 연상하게 하였다.

즉 강가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성은 자족의 미로 승화되었다. 또한 주변 물상에 대한 순간포착을 통해 생동감과 역동성을 보였다. 이는 청정한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청신의 미로 드러났다. 끝으로 수월정의 사계절에 대한 낭만성을 부각시켰다. 마치 선계인 듯 묘사되면서 탈속적인 면모를 구축하였다.

핵심어 : 강항, <수월정30영>, 일상성, 역동성, 낭만성

1. 머리말

姜沆(1567~1618)의 자는 太初이고, 호는 睡隱이다. 본관은 晉州이고 成渾의 門人이다. 일찍이 스승으로부터 단아하고 진실함을 인정받은 바 있다.¹⁾ 강항은 정유재란(1597) 때 왜군에 의해 被擄되었다가 4년여의 포로생활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강항의 문학적 성과는 그가 생환 이후에 시문 창작에 힘쓰면서 『睡隱集』²⁾에 전해진다.

<수월정30영>³⁾은 강항의 제영시로 팔경시에 해당한다. 팔경시는 특정 지역의 경관을 노래하기에 지역성을 지닌다. 따라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 바탕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성은 작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곤 한다.⁴⁾ 일반적인 팔경시에는 자신의 고향이나 유배지 은거지를 노래하면서 본인이 몸소 관찰하고 겪은 바를 그려낸다. 그러나 강항은 친분

1) 姜沆, 『睡隱集』附錄 <行狀>, “時牛溪先生愠于群小 門下寥落 而公遠往省之 先生稱其端諒”

2) 原集 권1에는 180제 260여 수의 작품이 있다. 내용으로는 次韻詩, 贈別詩, 挽詩, 敘景詩 등 다양하다. 그 외에 別集 등에 작품이 남아있다.

3) 姜沆, 『睡隱集』卷一, 七言絶句, 한국문집총간 73.

4) 안장리, 「16세기 팔경시에 나타난 미의식의 양상」, 『열상고전연구』 25집, 15쪽 참조.

이 두터운 지인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고찰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정자 주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작시배경이 되었다.⁵⁾ 수은이 직접 기문을 짓고 작시한 소상팔경식 누정제영시이다. 강항의 제영시는 『수은집』에 14제 52수가 수록되어 있다.⁶⁾ 수월정은 지금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가에 위치한 정자이다. 수월정의 주인은 鄭滌이라는 인물로 목사벼슬을 하였다.

기존의 강항에 대한 연구는 일정한 연구 성과를 이루고 있다.⁷⁾ 그중에서 강항의 시적 사유와 삶에 대한 천착을 들 수 있다. 또한 그의 시문학에서 내상과 치유적 형상에 대한 연구 성과가 있다. 이는 강항 시의 문학적 성과에 대한 연구 성과이다. 소상팔경식 제영시에 대한 연구도 상당한 성과가 있다.⁸⁾ 이는 소상팔경시의 관습시적인 양상을 고찰한 내용과 소상팔경 중 평사낙안과 동정추월에 집중한 연구를 볼 수 있다. 또한 제영시의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조경학측면에서 표현미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⁹⁾

5) 姜沆, 『睡隱集』 卷三, <水月亭記> 中, “余雖不獲登公之亭 而幸嘗竊誦公之歌 見公之書 已得水月之大槩 而若公之心則余固知之 於是乎書.”

6) 박세인, 「睡隱姜沆의 連作形題詠詩 고찰」, 『고시가연구』 2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140쪽 참조.

7) 이혜순, 「수은 강항의 시적 사유와 그 의미 : 귀환 이후의 시작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27, 한국한문학회, 2001, 195~226쪽; 김동준, 「수은 강항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8집, 한국한시학회, 태학사, 2003; 박세인, 「수은 강항의 연작형 제영시 고찰」, 『고시가연구』 25,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137~167쪽; 박세인, 「睡隱 姜沆의 詩文學 研究-內傷의 표출 양상과 치유적 형상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9; 윤양준, 「睡隱 姜沆의 生平에 관한 연구 : 年譜를 중심으로」, 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8) 안장리, 『한국의 팔경문학』, 집문당, 2002; 안장리, 「16세기 팔경시에 나타난 미의식의 양상」, 『열상고전연구』 25집, 15쪽; 안장리, 「소상팔경시와 삼척팔경시의 차운 양상에 대하여」, 『한국한시연구』 5, 한국한시학회, 1997, 147~165쪽; 김신중, 「소상팔경가의 관습시적 성격」, 『고시가연구』 5, 한국고시가문학회, 1998, 125~148쪽; 전경원, 「소상팔경 한시의 함의와 정서적 기여 : 洞庭秋月을 대상으로」, 『겨레어문학』 28, 겨레어문학회, 2002, 55~88쪽; 전경원, 「소상팔경 한시의 함의와 정서적 기여 : 평사낙안을 대상으로」, 『겨레어문학』 27, 겨레어문학회, 2001, 77~112쪽; 임준성, 「『俛仰亭三十詠』과 문화콘텐츠 활용」, 『우리말글』 56, 우리말글학회, 2012, 449~479쪽.

본고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강항의 <수월정30영>에 대한 표현 양상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강항의 문학적 성과의 한 측면을 밝히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한시 연구의 궁극적 의미인 미학적 성과에 접근하기 위한 것이다. <수월정30영>은 그의 제영시 52수중에서 30수의 연작형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 가지 주제와 관련한 연작형시는 시인의 미감 발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기존의 연구에서 강항의 시에 대한 미학적 접근이 아직 미미한 점에 주목하였다.

먼저 <수월정기>와 <수월정30영>의 구성방식을 중심으로 작품의 개관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격적인 연구로는 실경적인 측면의 접근보다는 표현 양상을 통한 미학적 측면의 고찰을 이루고자 한다. 한시의 미적 감성을 도출하는 일은 정치한 연구 분석의 초석이자 관건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강항 제영시에 나타난 문학적 성과가 일정부분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2. <수월정30영> 개관과 의미

<수월정30영>에 대한 개관과 의미는 강항이 지은 <수월정기>와 <수월정30영> 전체 구성방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수월정기>는 사대부가 자연과 접하여 살게 되는 계기를 서두로 시작하고 있다. 다음 내용을 살펴보고 내용별 단락을 지어볼 수 있다.

가) 사대부가 세상에 나아감에 뜻을 펴지 못하면 벼슬을 버리고 고향에 사는 자 반드시 명산과 여수가의 집과 꽃밭이 있는 정원에서 삶을 누리거나 한편으로는 맑고 한가하고 적막한 즐거움을 삼고, 시대를 근심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며 회포를 풀어내니 회양가 육일옹이 모두 그러하다.

9) 노재현 외, 「杯山 聯珠亭 12景의 景觀相과 表現美學的 特質」,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6, 한국전통조경학회, 2008, 9~19쪽.

나) 과거 목사 벼슬 광주인 정후가 50세에 세상의 버림을 당하여 드디어 선 대부 옥천 선생의 별장이 있는 광양으로 찾아갔다. 선조의 묘소와 10리쯤 떨어진 곳에서 살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골라 정자를 짓고 수월이라 명하였다.

다) 내가 보건대 남방의 산이 우뚝하게 높이 솟은 곳이 수천을 헤아리나 백운산이 가장 기이하고 남방의 물로 배를 띄울 만 한 곳은 수십을 헤아리나 섬진강이 가장 크다. 백운산 동쪽 기슭을 정자의 위로 삼고 섬진강 상류를 정자의 아래로 둔다면 그 빼어난 경치는 말할 것이 없다. 하물며 천하의 삼신산에 방장이 그 가운데에 있으니 불을 때서 밥 지어 먹으며 세상사람 중에 방장의 이름을 들은 자 또한 드물다.

라) 그런데 이곳에서 기거하고 마시고 먹으며 아침저녁으로 상대를 하니 어떠하겠는가. 왼쪽에는 영남이요 오른쪽에는 호남이니 섬과 산봉우리를 껴안듯 당기는 듯 장사배들이 모이고 장사꾼들이 밀린다. 악양의 아침과 학동의 저녁연기, 그리고 철쭉이 산을 뒤덮고 여름날의 구름이 봉우리를 이룬다. 서리가 내린 뒤에 수많은 나무가 붉게 물들고, 얼음이 언 뒤에 긴 강이 희니 그야말로 천태만상이 모두 자리 아래 모여든다. 이것이 수월정의 빼어난 경치이다.

마) 병화로 십 여 년 동안 문물이 끊어졌으나 수월정은 옛 모습 그대로다. 풍속이 떨어져서 인심이 전과 같지 않은데 수월은 그대로다. 시장의 도리는 날로 교묘해지고 모두 올라서 마른 곳은 버리고 무성한데로 모여 든다. 문에는 참새 그물을 칠만한데도 수월은 멀리 하지 않는다. 가기를 저렇듯 하여도 감이 아니요, 차고 이그러짐이 저렇듯 하여도 끝내 없어짐이 아니다. 달빛을 띄우고 금빛을 반짝이며 고요한 그림자가 옥을 담가놓은 듯하다. 물은 달을 얻어서 더욱 맑고 달은 물을 얻어 더욱 희니, 곧 정목사의 가슴에 품은 빛이 맑고 투명한 것과 같으리라. 이것이 수월이란 이름을 얻게 된 까닭이다.

바) 내가 비록 공의 정자에 아직 올라 보지는 못했으나 일찍이 선생의 노래를 모두 외워 보았고 선생의 글도 이미 모두 봐서 수월의 대체적인 것은 모두 알고 있다. 선생의 마음은 내가 본디 알고 있는 바다. 이에 이 기문을 쓰노라.¹⁰⁾

10) 姜沆, 『睡隱集』 卷三, <水月亭記> “士大夫之進不得有爲於斯世 棄位而巷處者 必謀明山麗水之濱 池館苑囿之樂 一以爲清閑寂寞之娛 一以抒憂時戀闕之懷 六一翁之於潁上 杜祁國之於睢陽 皆是已 前牧使光州鄭侯 年五十而棄於時 遂求先大夫玉川先生之別業於光陽 距先廬十里許而居之 選勝爲亭 以水月爲名焉 余觀夫南方之山 巍然高者以千數 而白雲爲最奇 南方之水 可行舟者以十數 而蟾江爲最大 以白雲之東麓爲屋山 而以蟾江之上流置屋下 則勝絕有不暇論也 而況天下之三神山 方丈居其一 煙火

가) 단락은 선비와 대부가 자연과 접하면서 정자를 짓게 되는 계기를 표현하였다. 뜻을 펼치지 못하고 낙향하여 고향의 산천을 둘러보며 자연과 순일하게 되는 이유를 그리고 있다. 나) 단락은 ‘수월’이라 이름 짓게 된 배경을 그리고 있다. 고향에 정착하면서 수월정을 짓고 선조의 묘소를 지키고자 함이다. 다) 단락은 수월정의 위치 설명에 주력하였다. 수월정은 광양의 백운산을 뒤로 하고 섬진강을 앞으로 끼고 있으며 지리산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절경을 아는 이가 극히 드물 것이라고 그리고 있다.

라) 단락은 수월정의 주변 경관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전쟁의 요충지요 시장의 거점인 번성하였던 당시를 알게 해 준다. 장사배들이 모이고 장사꾼들이 떠들며 어울리고, 철쭉이 산을 뒤덮고 여름날의 구름이 봉우리를 이루는 모습 등 <수월정30영>에서 노래한 절경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마) 단락은 수월정의 역사 및 이름을 짓게 된 까닭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풍속이 떨어지고 인심이 변해도 흔들림 없는 수월의 풍모를 치하한다. 시장의 인심 또한 날로 변하여 농단을 일삼는다하여도 이곳 수월의 정감은 예전 그대로임을 밝히고 있다. 주변 사람들의 소박하고 넉넉한 인심을 알 수 있다. 정자의 주인 정목사의 마음속에 품은 빛이 위아래로 서로 합하여 수월이라 하였으니, 곧 물과 달빛의 맑고 투명함을 두고 한 말이다. 그 뜻이 정자 주인의 인품과 같음을 드러냈다.

끝으로 바) 단락은 정자 주인과 강항의 인연과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비록 미처 다 가보지는 못했으나, 정자의 모습을 눈에서 본 듯 들어 알고 있으며, 정자 주인의 시를 통해 익히 그 지역 풍모를 엿볼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강항과 정자 주인의 신뢰를 가늠할 수

食人之生世間 聞方丈之名者亦罕矣 其於起居飲食 早夜相對者 何如哉 左嶺右湖 控引島巒 商舡之所走集 市賈之所輻湊 岳陽朝嵐 鶴洞暮煙 躑躅成山 火雲成峯 霜落而千林紅 氷塞而長河白 千態萬狀 畢集於几席之下 則此水月之所以選勝也 兵火十年 文物一空 而水月則依舊也 世降俗末 人心不古 而水月則猶前也 市道日巧 一錢俱湧 而水月則無價也 棄枯集苑 門雀可羅 而水月則不遐也 逝者如斯而未嘗往也 盈虛者如彼而卒莫消長也 浮光躍金 靜影沈璧 水得月而益清 月得水而益白 直與侯之胸采 上下乎同符 則此水月之所以得名也 余雖不獲登公之亭 而幸嘗竊誦公之歌 見公之書 已得水月之大槩 而若公之心則余固知之 於是乎書。”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은 작품에 대한 제작배경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비록 강항의 <수월정기>는 미처 장소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작되었더라도 <수월정30영>에 대한 작시는 이러한 작시 배경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직접 관찰하고 체험한 것이라 단언할 수 없으나, 30영을 모두 관습적인 태도로 썼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의 미학적 감성과 식견이 어우러진 작품이 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수월정기>는 강항과 정자 주인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또한 <수월정30영> 작시의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수월정30영>의 구성방식에 관한 표를 통해 전체 30영의 흐름을 관망하고자 한다.

표. <수월정30영>의 구성방식

순서	시제	내용 분석	표현 방향
제1영	大洞風月	대동의 풍월	정자 주인의 삶 묘사
제2영	岳陽烟霞	악양의 연하	자연 경관의 조화로움
제3영	競秀千岩	경수한 천암	"
제4영	爭流萬壑	만학의 쟁류	"
제5영	分地春花	분지의 봄꽃	수월정의 봄
제6영	方丈夏雲	방장의 여름 구름	수월정의 여름
제7영	白雲秋月	백운의 가을 달	수월정의 가을
제8영	蕙岩冬雪	순암의 겨울 눈	수월정의 겨울
제9영	東嶺朝暾	동령의 아침 해	자연 경관의 조화로움
제10영	西山落照	서산의 낙조	"
제11영	朝宗逝水	조희 가는 물	"
제12영	歸市行人	市로 가는 행인	경관과 인간의 어울림
제13영	平沙落鴈	평사에 내리는 기러기	경관과 순간포착의 역동성
제14영	柳岸飛鶯	버드나무 언덕의 나는 피꼬리	"
제15영	靑坡牧犢	청과의 송아지	"
제16영	竹林栖鳥	죽림의 까마귀	"

제17영	長郊牧笛	긴 들의 목동 피리	경관과 인간의 어울림
제18영	遠浦漁歌	원포의 뱃노래	"
제19영	竹桶引泉	죽통의 인천	경관과 소리의 표현
제20영	水砧春梁	수침의 용량	"
제21영	間竹梅菊	대나무 사이의 매국	꽃나무의 미감
제22영	傲雪松篁	오설의 송황	"
제23영	魚躍蓮池	물고기가 연지에서 뛰다	경관과 순간포착의 역동성
제24영	霜酣楓岸	서리 맞은 단풍	꽃나무의 미감
제25영	南橋送客	남교에서 객을 보내며	경관과 인간의 어울림
제26영	北里招朋	북리에서 벗을 초대하며	"
제27영	龍灘泛舟	용탄에서 배를 띄우며	"
제28영	龜淵釣魚	귀연에서 낚시질	"
제29영	松下煎茶	소나무 아래에서 차를 다리다	"
제30영	梅邊酌酒	매화언덕에서 술을 따르다	"

위 표를 보면, 제1영은 정자 주인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이하 제2영부터 4영까지는 자연 경관의 조화를 그렸다. 이는 자연의 경이로운 어우러짐이 바탕이 된다. 자연의 신비로움을 담고 있다. 제5영부터 8영까지는 수월정의 사계절을 묘사한 것이다. 섬진강과 수월정, 그리고 백운산과 지리산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사계절의 경이한 신비감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선계의 탈속적 미감이 돋보인다. 제9영부터 11영까지는 마찬가지로 자연 경관의 조화를 그려내면서 생동감과 진한 색채감이 돋보인다. 제12영은 경관과 인간의 어울림을 그렸다. 또한 순박한 강가 사람들의 자족의 미와 생동감을 포착할 수 있다. 제13영부터 16영까지는 경관과 동물의 소리, 그리고 그들의 행동 묘사를 담고 있다. 시에 청각적 심상과 역동성을 그려냈다.

제17영과 18영은 다시 자연과 어우러진 인간의 모습을 그려서 그들의 소박한 자족의 미를 부각시켰다. 제19영과 20영은 힘찬 물줄기 소리에

대한 부각으로 시에 있어 청각적 심상을 그려냈다. 제21영과 22영은 꽃과 나무의 색채미를 주목하여 드러냈다. 제23영은 도약하는 물고기의 역동성을 24영은 다시 꽃과 나무의 눈부신 아름다움과 단풍의 고운 색감을 묘사하였다. 제25영부터 30영까지는 경관과 인간의 어울림을 그려냄으로써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멋과 여유를 표현하였다. 이로써 <수월정30영>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였다. 여기에는 주변 경관 묘사와 수월정의 사계절에 대한 청각적 심상, 그리고 색감에 대한 두드러진 표현이 반복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으로, 수월정의 사계절을 시제화한 것이 모두 4개영이다. 이 밖에도 자연 경관의 조화로움을 읊은 것이 6개영이 있다. 동물들에 대한 소리의 표현은 모두 5개영이다. 여기서는 주변 물상에 대한 순간 포착의 역동성이 드러난다. 끝으로 경관과 인간의 어울림에 대한 부분이 9개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수월정30영>의 전체 흐름과 주요 표현 방향을 알 수 있었다. 정자 주인의 삶과 인품 묘사를 시작으로 자연 경관의 조화와 사계절의 아름다움, 경관과 순간포착의 역동성을 그려냈다. 이어서 시의 후반부는 주로 경관과 인간의 어울림을 그려냄으로써 강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멋스럽게 그려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월정30영>에 나타난 표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수월정30영>의 표현 양상

1) 강가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성

섬진강과 수월정 주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섬진 나루터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차를 다리고 멋스럽게 술잔을 건네는 모습까지 다양한 삶을 표현하고 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어가는

삶의 멋과 여유를 그려냈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삶의 일상적인 단면에 시인의 미감을 형상화시켰다. 이를 소박함 속에 피어나는 자족의 미로 승화시켰다. 이에 대한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從古蟾津號要津	예로부터 섬진강을 좋은 나루라고 불렀으니
綠荷包飯似魚鱗	푸른 연잎에 싸 놓은 밥이 고기비늘 같네.
分明一闕有奇偶	시장에서는 운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으니
堪笑區區壟斷人	애써 이윤을 취하려고 농단하는 사람 비웃을 만하네.

〈歸市行人〉

이 시는 섬진 나루터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섬진 나루터는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섬진 마을에 위치하였다. 서쪽으로는 구례군과 북쪽으로는 하동과 연결되는 규모가 큰 교통로였다. 그래서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다.¹¹⁾ 섬진강가 사람들의 활기차면서도 여유로운 일상을 알 수 있다. 시장 사람들의 분주한 일상 속에 오가는 정감이 묻어난다. 또한 예로부터 전해지는 섬진 나루에 대한 평판 언급은 시에 있어 친근감을 준다. 욕심 없는 순수한 사람들의 모습을 읽을 수 있다.

기구에서 예로부터 전해지는 평판을 제시하여 변성하였던 모습을 그럴 수 있게 하였다. 이를 승구에서 시각적인 면과 비유법을 통해 구체화시켰다. 즉 ‘綠荷’는 시에 색깔을 주어 생동감을 부여하였다. 또한 연잎에 싸인 밥 모양을 ‘魚鱗’에 비유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분위기에 대한 간접 표현이다. 긍정적이며 유쾌한 시선이다. 전구에서는 청각적 요소를 그려내면서 시의 생동감과 구체성을 확보하였다. ‘一闕’¹²⁾은 여럿이 함께 큰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여기서는 시장의 의미이다. 떠들썩하게 외치는 시장 상인들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이는 시의 활력과 긴장감을 주는 요인이 된다. 결구에서 ‘壟斷’¹³⁾을 언급하며 순수한 사람들의 모습

11) 최인선, 『광양시의 호국향쟁유적』, 순천대학교박물관·광양시, 1999, 37쪽 참조.

12) 揚雄, 『法言』 學行

13) 『孟子』 公孫丑章句下, “壟斷” 높은 언덕에 올라 좌우를 바라보고 리를 그물질하

을 통해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이끌어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보여주는 자족하는 삶의 일상적인 모습으로 그려냈다.

松子煎茶松影裏	솔방울로 솔 그림자 속에서 차를 다리니
松根盤礴聽松風	솔뿌리는 서러 있고 솔바람 소리 들리네.
松風本在松枝上	솔바람이 본시 솔가지 위에 있는데
忽入先生石鼎中	홀연히 선생의 돌솥 속에 들어갔네.

<松下煎茶>

소나무 아래에서 차를 다리며 느끼는 정회를 읊었다. 솔방울로 그늘 아래에서 차를 다리는 멋스러운 광경이다. 또한 이 시에서는 조식의 칠보시¹⁴⁾를 연상시키는 시구를 볼 수 있다. 기구에서 회화미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마치 제화시인 듯 화면의 미감이 전해진다. 소나무 그림자 속에서 차 달이는 모습과 솔방울 향기가 동시에 전해지는 듯한 감각적인 시구이다. 승구에서는 청각에 무게를 실었다. 오래된 솔뿌리의 모습은 그만큼 시원한 솔바람 소리를 동반할 것이다. 정지된 화면에 솔향과 솔바람 소리가 어우러져 정중동의 미감을 그려낸다.

전구의 ‘솔바람이 본래 솔가지 위에 있다’는 표현은 칠보시의 “本是同根生”을 연상시킨다. 푸르른 솔가지와 솔바람을 콩과 콩대처럼 비유하였다. 이는 콩과 콩대가 본래 한 뿌리에서 났다는 뜻으로 형제간의 다툼을 비유하는 것에서 생긴 말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어떤 직접적인 갈등보다는 솔가지에서 불어오는 솔바람의 근원을 멋스럽게 그리고자 함이다. 거기에 인연으로 맺어진 삶과 맞닿아있는 애환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결구의 “忽入先生石鼎中”은 자발적인 인연 맺기의 분위기를 띠고 있다. 인연이 만들어내는 상승효과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연은 삶의 애환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 때 얻어

는 자.

14) 曹植, <七步詩> “煮豆燃豆其 豆在釜中泣 本是同根生 相煎何太急.”

지는 효과를 감각적으로 그려냈다고 볼 수 있다.

一觴移就老梅根	한 잔을 옮겨서 늙은 매화 뿌리로 나아가니
爲是清香撲酒尊	그것은 맑은 향기가 술동이를 치기 때문이네.
醉後不知山日暮	취한 후 산속의 해가 저문 지 알지 못했으니
淡煙疏月正黃昏	담담한 연기와 희미한 달빛이 바로 황혼이 되었네.

〈梅邊酌酒〉

한적한 풍류가 어우러진 멋을 읽을 수 있다. 시인은 한 잔 술을 들고 梅邊으로 간다. 그곳에서 마음껏 경치에 취하고 술에 취하여 해가 저문 지도 알지 못한다. 어느새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와 희미한 달빛으로 배경이 바뀌어 있다. 주변 풍광에 어울린 시인의 정취는 한껏 고무되어 있다. 누정제영사에서 보여주는 경관 감상은 물아일체의 그것에 맞닿을 때 최고조에 이른다.

기구에서 술 한 잔 하기에 알맞은 장소로 나아간다. 이는 시인의 적극적인 감정이입의 발판이 된다. 이어서 승구에서 시인의 감정분출의 계기를 그리고 있다. 즉 잘 익은 술동이에서 나는 맑은 술 향기에 원인을 두고 있다. 또한 술 향기에 대한 표현을 ‘撲酒尊’이라 하여 시인의 흥이 시의 리듬감을 살린다. 전구를 보면, 이미 한참 술을 마신 후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시인은 흥겨움을 드러내지 않았다. 다만 해 저문 지 모르도록 빠져있었던 상황을 그렸을 뿐이다. 결구에서는 변화된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삶에 있어서도 젊은 날의 달콤함과 쓴맛을 겪다 보면 어느새 인생은 황혼기에 접어드는 바를 그린 것이다. ‘清香’의 술 향기에 취해 젖다보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었다. 지금 현재 시인에게 주어진 인생의 황혼기에 대한 담담함을 읽을 수 있다.

이밖에도 강가 사람들의 한적하면서도 일상적인 면모, 그리고 삶에 대한 철학은 〈龜淵釣魚〉¹⁵⁾에서도 잘 표현되었다. 〈龜淵釣魚〉의 전구와 결

15) 〈龜淵釣魚〉, “龜淵魚似沔南魚 把釣來投細雨餘 鼎有烹鮮盤有鱸 老來謀飽未全疏.”

구를 보면, “鼎有烹鮮盤有鱠 老來謀飽未全疏(술에는 삶은 생선이 있고 쟁반에는 회가 있으니 늘그막에 배부름을 꾀함이 전혀 소홀하지 않네).”라고 하였다. 이는 현재 삶을 즐기며 여유를 찾고자 하는 자족의 삶을 그린 것이다. <수월정삼십영>에 나타난 자연과 사람의 어울림은 한적한 일상 속에서 빚어내는 소박한 자족의 미로 승화되었다.

2) 주변 물상에 대한 순간포착의 역동성

본 절에서는 섬진강 주변의 경치뿐만 아니라 주변 물상과의 어우러짐과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청징하고 역동적인 면모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소상팔경시에서 볼 수 있는 자연경물 완상과 더불어 생동감을 더하여 활력적이다. 여기에는 순간포착의 청각적 심상에 대한 자유로운 발상으로 물상과의 자연스러운 조화와 청신의미를 엿볼 수 있다.

鑿破蒼苔一席許	푸른 이끼 한 자리쯤 파서
清泉數斛十莖荷	맑은 물 두어 섬에 열 줄기 연을 심었네.
天光雲影忽破碎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홀연 부서지니
知有遊魚潑潑過	노는 고기가 꼬리치며 지나감을 알겠네.

<魚躍蓮池>

물고기가 蓮池에서 뛰어오름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청징하고 역동적인 면모가 두드러진다. 순차적 구성으로 장면마다 시각적인 측면이 두드러진다. 먼저 기구는 ‘蒼苔’ 즉 푸른 이끼를 조금 파내서 만들어진 연못을 그리고 있다. ‘一席’은 좌석 하나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앉을 자리 하나를 펼만한 좁은 땅을 가리킨다. 이를 ‘一席之地’라고도 한다. 옥심 내지 않고 작게 만든 연못에 정성을 담고 있다. 승구를 보면, 맑은 물 몇 섬을 붓고 ‘荷’를 심는다. ‘열 줄기 연’은 기구의 ‘一席’과 대를 이룬다. 시인은 초점을 크기와 개수에 두기 보다는 ‘蒼苔’와 ‘清泉’처럼 주변의 깨끗한 심상 등과 조화로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크고 화려한 주변 풍광보

다는 작고 소박한 맑은 세계에 대한 추구이다.

전구에서는 소박한 연못에 드러나는 풍광을 담았다. 맑은 연못의 움직임 그리는 긴장감을 준다. 정지된 화면의 연못이 아니라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일순간 부서지면서 변화를 예고한다. 마치 영상을 보는 듯한 극적 긴장감이 감돈다. 결구에서 움직임의 주체가 등장한다. ‘遊魚’의 움직임, ‘潑潑’은 의성어로 물고기가 꼬리치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물속에 비친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홀연 부서지면서 ‘발발’ 튀어 지나가는 물고기의 유연한 역동성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었다. 이렇듯 자연의 어우러짐은 서로 도드라지지 않고 스며들면서 조화를 이룰 때 미적 감흥을 이룰 수 있다. 맑은 풍광 속에 이루어지는 청신한 감각적 발상이다.

楊柳青青三月暮	버드나무 푸르른 삼월이 저물어 가는데
金衣公子喚詩人	금의공자가 시인을 부르네.
笙簧百轉寧須汝	피리소리 아름답게 우니 어찌 내가 필요하리
只愛年年不棄貧	다만 해마다 가난한 사람 버리지 않은 것이 고맙네.

〈柳岸飛鶯〉

버드나무 언덕에서 들려오는 피꼬리 소리에 대한 감회를 그렸다. 기구에서는 푸르른 버드나무와 삼월의 대비를 통해 완연한 봄기운을 드러냈다. 즉 상황묘사 전에 배경에 대한 묘사로 시각에 초점을 두었다. 승구의 ‘金衣公子’는 피꼬리를 말한다. 피꼬리 울음소리는 시인의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전구에서 금의공자 소리에 대한 묘사가 극대화되었다. 피리 소리처럼 맑음에 시인의 감성을 풀어낸 것이다.

시인 또한 아름다운 운율을 만들지만 금의공자 소리에 비길 것인가를 말한다. 시인의 미적 감성에 의한 표현일 것이다. 이를 ‘寧須汝’라고 표현하고 있다. ‘汝’는 그대, 당신을 뜻한다. 여기서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므로 작자인 강향을 뜻하는 것이다. 결구에서 시의를 표현하였다. 해마다 가난한 시인의 시름을 잊게 하며 한 순간의 즐거움이 되는 금의공자에 대한 반가움이다. 힘겨운 현실의 삶에 지치고 외로울 때 벗처럼 해마

다 나타나 일순간의 기쁨을 주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자연에서 누릴 수 있는 청신한 멋의 즐거움을 그렸다.

또한 목동의 피리 소리에 대한 감각을 표현한 작품 <長郊牧笛>¹⁶⁾이 있다. 기구와 승구를 보면, “眠牛隴上草如烟 牧笛一聲橫晚天(소가 잠든 언덕 풀은 연기 같고 목동 피리 한 소리가 저녁 하늘에 비졌네).”이라고 하였다. 피리 소리를 시각화하여 ‘牧笛一聲橫晚天’이라 묘사하였다. 경쾌하고 날렵한 一聲 피리 소리에 대한 표현이 돋보인다. 목동의 피리 소리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처럼 소리와 자연이 어우러진 맑고 청정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一聲何處漁歌傲	어느 곳 뱃노래 한 소리가 오만한가
聲逐斜風細雨過	소리가 산들바람과 가는 비를 따라 지나가네.
畫堂玉佩縈雲響	화당의 옥패차고 자운까지 울리는 것이
爭似蓑翁歌此歌	도롱이 입은 늙은이가 부른 이 노래만 하리오.

<遠浦漁歌>

앞서 논한 <魚躍蓮池>와 <柳岸飛鶯>은 물고기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새소리에 대한 청정한 묘사였다. 그에 비해 이 작품은 자연 속에서 인간의 감성이 어우러진 고기잡이 뱃노래에 대한 형상화이다. 어부의 뱃노래에 실린 역동성과 생동감을 그려냈다. 특히 기구에서 ‘傲’는 뱃노래 한 구절의 기세와 청아한 목청임을 감지하게 한다. 시 전면을 치고 들어오는 노랫소리의 기상을 엿볼 수 있다. 승구는 앞서 논한 <長郊牧笛>의 승구처럼 소리의 시각화를 피하였다. 구성지게 들리는 뱃노래 한 소절이 산들바람과 가는 비를 따라 지나간다고 하였다. 이는 산들바람에 가랑비 내리는 시점을 포착하여 그려낸 절묘한 소리의 시각화이다. 그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곡조를 시각화하였다. 도드라지지 않고 자연의 물상과 어우러지는 정감 있는 소리를 묘사한 것이다.

16) <長郊牧笛>, “眠牛隴上草如烟 牧笛一聲橫晚天 年年折盡江頭柳 鼓吹傳呼恐疾顛.”

전구에서는 다른 노래를 묘사하고 있다. 즉 좋은 집에서 구름까지 닿을 정도로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기세등등한 울림의 노래를 말한다. 화려하고 멋들어지게 어우러지는 풍악을 그려낸 것이다. 그러나 결국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화려한 노래가 어찌 어부의 뱃노래만 하겠는가를 말한다. 모든 조건을 갖춘 화려한 음악보다 어부의 뱃노래에서 느껴지는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을 부각시킨 것이다. 실바람이 불고 가랑비 오는 속에서 뱃노래가 아련히 어우러지고 있다. 즉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청신한 멋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청각적 심상은 순간포착의 역동성으로 시 전면에 생동감을 주었다.

3) 수월정 사계절의 낭만성

문학 속에서 자연은 대상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화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물과 현상이 주관적으로 묘사되곤 한다. 그림이 화면에 옮겨지면서 화가의 의식이 투영되어 표현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연의 엄밀한 과학적 현상은 시인 또는 화자의 눈을 통해 다양하게 해석된다. 이것이 감성적 고찰의 소산으로 인간의 감성과 미감을 자극하고 촉진시키는 요인이다.

여기서는 강향이 노래한 <수월정30영>의 사계절에 대한 미적 감각을 파악할 것이다. 이는 기존 팔경시의 관습시적인 면과 더불어 강향의 미적 표현을 탐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섬진강과 백운산, 지리산을 아우른 수월정의 사계절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사계절 자연의 아름다움을 낭만적으로 그리면서 탈속적 공간을 연상하게 한다. 명승은 대개 탈속의 정취를 지닌 신선계에 비유되곤 한다. 아름다운 경관의 이상적인 면모가 선계의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¹⁷⁾ <수월정30영>도 자연 경관에 대한 낭만적 표현으로 기존의 팔경시가 보여주는 탈속적 미감을 볼 수 있다.

17) 안장리, 앞의 논문, 18쪽 참조.

一度韶陽一度新	한 번의 봄별에 한 번 새로우니
山家契濶未全貧	산속의 집이 고생스러워도 전혀 가난치는 않네.
任他紅紫競時節	분홍과 자주가 시절을 다투게 내버려두니
粧點亭臺滿意春	단장한 전각과 누대에 봄이 가득하네.

<分地春花>

봄을 노래한 시이다. 봄꽃을 그리면서 색감 표현에 주력하였다. 고단한 시골살이의 가난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구를 보면, 따스한 봄별에 날로 새로워지는 감성을 담았다. 겨울에서 점차 봄의 기운이 짙어감을 그리고 있다. 이를 ‘一度新’의 자각으로 표현하였다. 승구에서는 산속 생활을 말하지만 고단함을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契濶’은 부지런히 수고함을 말하며 갖은 고생을 뜻한다. 이러한 현실의 각박한 면모를 초탈함이 엿보인다. 전구에서는 여러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서 세상 가득해지는 봄의 정경을 그리고 있다. 마치 도화원인 듯한 짙은 회화성은 선계를 연상시킨다. 더욱이 결구에서는 단장한 전각과 누대에 초점을 두고 시각의 폭을 넓히면서도 거리를 확대하였다. 카메라 앵글을 근경에서 원경으로 잡으면서 얻을 수 있는 화면의 담대함과 시각의 확대를 꾀한 것이다. 시각의 초점을 조절하면서 작품의 품격을 완성하였다. 이로써 봄날의 싱그러움을 짙은 색감과 함께 삶의 고난을 마치 선계인 듯 초탈한 면모로 승화시켰다. 특히 결구인 ‘粧點亭臺滿意春’은 따듯한 봄의 기운으로 낭만적이면서 여유로운 정취를 담고 있다.

方丈山雲山上山	방장산의 구름은 산위에 산과 같고
愁心千疊有無間	수심은 천 겹이나 있는 듯 없는 듯하네.
從龍未慰三農望	용을 따르면서 삼농의 소망을 달래지 못하고
碧落飄然去又還	푸른 하늘에 펄럭이며 갔다가 또 돌아오네.

<方丈夏雲>

방장산의 여름 구름을 그렸다. 방장산은 지리산을 말한다. 기구에서 구름을 통해 지리산의 높음을 비유하였다. 여름 구름의 변화는 실로 다기하

다. 방장산의 구름이 산위에 또 산이 있는 듯 펼쳐진 광경이다. 시선처리를 최상향화 하였다. 반면 승구에서는 ‘愁心’을 말하면서 천 겹 산등성이의 깊이를 채는 듯하다. 이처럼 시선처리를 수직낙하 시키면서 진정 신선이 노닌다는 방장산의 높이를 드러낸 것이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구름 위의 산과 ‘千疊’을 통해 산의 높음과 깊이를 그려냈다. 더구나 ‘有無間’은 천 겹의 산을 더욱 강하게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름으로 인해 분명 산이 있는데 없는 듯하고 산이 없는 듯 보이지만 분명 있음을 묘사한 것이다. 낭만적이면서도 신비한 모습으로 탈속의미를 가늠할 수 있다.

전구에서는 ‘三農’을 그렸다. 삼농은 농사를 이르는 말로 봄, 여름, 가을의 농사철을 말한다. 즉 봄갈이와 여름 갈이, 가을 추수로 이루어진 세 단계의 농사를 총칭한다. 이는 곧 여름철 변화무쌍한 날씨와 구름의 다채로운 변화를 비유한 것이다. 절구에서는 이를 더욱 보완하여 맑은 하늘에 많은 구름들이 몰려다님을 그리고 있다. 깊은 산중과 어우러진 높은 하늘의 풍성한 구름의 표현법이다.

一片冰輪萬里浮	한조각 얼음바퀴가 만 리에 떠 있고
白雲山上白雲秋	백운산 위에는 흰 구름 떠 있는 가을이네.
憑誰問着此時月	누구에게 이때의 달을 물어 보리오
應照長安明月樓	아마도 장안의 명월루에도 비추리.

〈白雲秋月〉

팔경시를 볼 때 사계절 중에 그 표현이 가장 많은 계절이 가을이다.¹⁸⁾ 강항은 백운산의 가을 달로서 秋景의미를 묘사하였다. 또한 옛 명성의 도시 장안과 연결시키면서 가을의 풍성함을 대변하고 있다. 항상 변함없는 자연의 현상은 가없는 신뢰와 믿음의 소산이기도 하다. 기구는 멀리 떠 있는 달을 그려냈다. 멀리 떠 있는 ‘一片冰輪’의 달빛은 인간의 마음에

18) 일반적으로 팔경 중에서 秋景에 대한 묘사는 “平沙落雁·遠浦歸帆·洞庭秋月·瀟湘夜雨·漁村夕照” 등에서 엿볼 수 있다.

경외감을 주기도 하고 의지처이기도 하다. 이별과 그리움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만남을 떠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승구는 섬진강 수월정을 뒤에서 품은 백운산에 대한 언급이다. 백운산에 서린 가을의 모습을 그려내고자 한 것이다. 흰 구름에 둘러싸인 백운산의 낭만적인 가을을 그리고 있다. 결구를 보면, 시인은 가을 달빛의 깊이를 시공을 초월하여 묘사하고 있다. 아련하고 낭만적인 달빛 이미지를 끌어내고 있다.

다음은 겨울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을 살펴보고자 한다. 겨울에 뒤덮인 눈의 정경을 신선이 산다고 하는 閨風巔에 비유하고 있다.

蓴岩冬雪積成堆	순암의 겨울눈이 쌓여 무더기를 이루니
疑是穆王重壁臺	목왕의 중벽대인가 의심나네.
誰着王恭鶴氅坐	누가 왕공의 학창의를 입고 앉았을까
神仙初出閨風來	신선이 낭풍전에서 처음 나온 것 같네.

<蓴岩冬雪>

순암의 겨울눈이 쌓인 모습을 신선이 산다는 ‘閨風巔’과 연결시키고 있다. 범접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신성한 흰 눈의 이미지를 극대화하였다. 이러한 겨울 분위기를 낭만적이면서 초탈한 세계로 그리고 있다. ‘閨風’은 곤륜산 꼭대기로 신선이 산다는 곳이다. ‘鶴氅衣’는 학의 털로 만든다는 신선의 의복을 말한다. 온 세상이 흰 눈에 쌓인 모습에 대한 형상화이다. 가득 쌓인 겨울눈의 모습을 무욕의 선계로 이끌면서 탈속적인 미감을 증진시켰다. 흰 눈이 쌓인 모습과 신선의 연결은 관념과 미학적 측면의 표현일 것이다. 이로써 실경과 허경의 조화 속에 미의식 발현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강항의 <수월정30영>에 나타난 표현 양상 연구를 통해 그의 묘사 기법과 형상화 방식, 그리고 미적 감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경관과 인간이 어우러진 모습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소박한 일상성을 부각하였다. 자족의 미로 승화시켜 인간의 삶에 대한 품격을 그리고자 하였다. 또한 주변 물상에 대한 순간포착을 통해 생동감과 역동성을 구축하였다. 청징

한 주변 환경과 물상이 어우러진 청신의 미로 드러났다. 끝으로 수월정 사계절에 대한 낭만성을 엿볼 수 있었다.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현실계는 마치 선계인 듯 묘사되면서 탈속적인 면모를 구축하였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강항의 <수월정30영> 표현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그의 문학적 성과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수월정기>를 통해 <수월정30영>의 개관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전체 30영에 대한 구성방식을 정리하며 시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즉 정자 주인의 삶과 인품 묘사를 시작으로 자연 경관의 조화와 사계절의 아름다움, 경관과 순간포착의 역동성을 그려냈다. 이어서 시의 후반부는 주로 경관과 인간의 어울림을 그려냄으로써 강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멋스럽게 그려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월정30영>에서는 모두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표현 양상을 드러낼 수 있었다. 먼저 강가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성이다. 섬진강과 수월정 주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그려냈다. 섬진 나루터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에서 차를 다리고 멋스럽게 술잔을 따르는 모습까지 다양한 삶을 표현하고 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이어가는 삶의 멋과 여유를 그려냈다. 이에 대한 작품은 <歸市行人>, <松下煎茶>, <梅邊酌酒>, <龜淵釣魚> 등에서 볼 수 있었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삶의 일상적인 단면에 시인의 미감을 형상화시켰다. 이를 소박함 속에 피어나는 자족의 미로 승화시킨 것이다.

다음은 주변 물상에 대한 순간포착의 역동성을 도출할 수 있다. 섬진강 주변의 경치뿐만 아니라 주변 물상과의 어우러짐과 역동성에 초점을 두고 고찰하였다. 청정하고 역동적인 면모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소

상팔경시에서 볼 수 있는 자연경물 완상과 더불어 생동감을 더하여 활력적이다. 이에 대한 작품은 <魚躍蓮池>, <柳岸飛鶯>, <長郊牧笛>, <遠浦漁歌> 등에서 고찰할 수 있었다. 여기에는 순간 포착의 청각적 심상에 대한 자유로운 발상으로 물상과의 자연스러운 조화와 청신의미를 엿볼 수 있다.

끝으로 수월정의 사계절에 대한 낭만성을 그려냈다. 아련하고 낭만적인 달빛 이미지를 끌어내고 있다. 실경과 허경의 조화 속에 초탈한 세계의 면모를 표현하였다. 이에 대한 작품은 <分地春花>, <方丈夏雲>, <白雲秋月>, <蓴岩冬雪> 등을 들 수 있다. 명승은 대개 탈속의 정취를 지닌 선계에 비유되곤 한다. <수월정30영>도 자연 경관에 대한 낭만적 표현으로 기존의 팔경시가 보여주는 탈속적 미감을 볼 수 있다. 특히 수월정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낭만적으로 그려내면서 마치 탈속적 공간을 연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강가 사람들의 일상성 표현은 자족의 미로 승화시켰다. 또한 주변 물상에 대한 순간포착을 통해 생동감과 역동성을 구축하였다. 이는 청정한 주변 환경과 물상이 어우러져 청신의 미로 드러났다. 끝으로 수월정의 사계절에 대한 낭만성을 부각시켰다. 이는 마치 선계인 듯 묘사되면서 탈속적인 면모를 구축하였다.

참고문헌

- 강 향, 『수은집』, 한국문집총간 73.
_____, 『국역 수은집』, 전라남도, 1989.
『맹자』
- 김동준, 「수은 강항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8집, 한국한시학회, 태학사, 2003.
- 김신중, 「瀟湘八景歌의 관습시적 성격」, 『고시가연구』 5, 한국고시가문학회, 1998, 131쪽.
- 박세인, 「수은 강항의 연작형 체영시 고찰」, 『고시가연구』 25,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140쪽.
- 박세인, 「睡隱 姜沆의 詩文學 研究-內傷의 표출 양상과 치유적 형상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9.
- 윤양준, 「睡隱 姜沆의 生平에 관한 연구 : 年譜를 중심으로」, 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이혜순, 「수은 강항의 시적 상유와 그 의미: 귀환 이후의 시작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27, 한국한문학회, 2001.
- 안장리, 「16세기 팔경시에 나타난 미의식의 양상」, 『열상고전연구』 25집, 15쪽, 18쪽.
- 전경원, 「소상팔경 한시의 함의와 정서적 기여 : 洞庭秋月을 대상으로」, 『겨레어문학』 28, 겨레어문학회, 2002.
- 전경원, 「소상팔경 한시의 함의와 정서적 기여 : 평사낙안을 대상으로」, 『겨레어문학』 27, 겨레어문학회, 2001.
- 최인선, 『광양시의 호국항쟁유적』, 순천대학교박물관·광양시, 1999, 37쪽.

<中文摘要>

姜沆의 《水月亭三十詠》 表现样相

黄秀贞

本论文是关于姜沆(1567~1618)《水月亭三十詠》表现样相的研究。水月亭是位于现全罗南道光陽市多鴨面蟾津江边的亭子。首先通过《水月亭记》考察了《水月亭三十詠》的梗概和意义。还对30詠的构成方式进行了梳理, 并考察了诗的变化。本文通过以下三个方面对《水月亭三十詠》的表现样相进行了整理。

第一、表现了江边人们素朴的日常性。描写了日常生活中的情致。将诗人的美感形象地刻画在日常琐碎的生活中, 并在朴素中将这种美感升华为自足的美。

第二、瞬间捕捉出了周边景物的生动性。清澈且具有动感的形象特点尤为突出。通过瞬间捕捉到的听觉的心象, 可观察到清新之美。

第三、描写了水月亭四季的浪漫之美。实际景观与虚化的景致互相调和刻画出了一个超凡的世界。水月亭周围的自然之美与浪漫的氛围使人将其联想为一个脱俗的空间。

也就是说, 江边人们所表现出的朴素的日常生活升华为一种自足的美。另外, 通过瞬间捕捉周围事物, 表现了其生动性与动态性, 而这与清新的周围景观融合, 表现了清新之美。最后还对水月亭四季的浪漫性进行了刻画, 构建了一个像仙界一样脱俗的世界。

关键词 : 姜沆, 《水月亭三十詠》, 日常性, 生动性, 浪漫性

